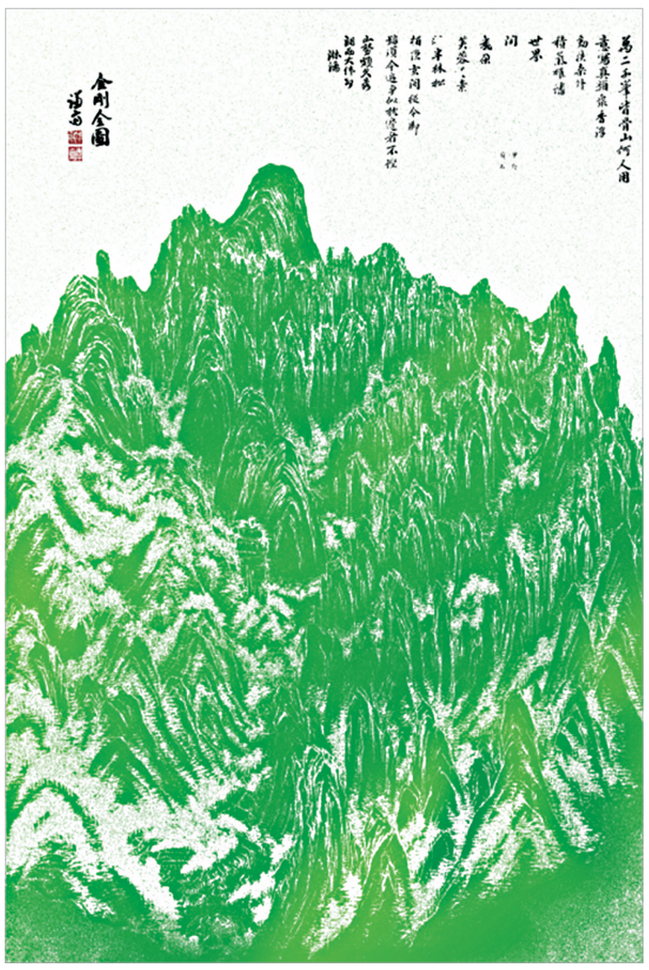
이이남 '금강내산_형상 밖에서 벗어나 존재의 중심에 서다'

진경산수의 전경·자연의 미학 결합

이이남 특별전 '형상~' 19일까지
겸재정선미술관 재개관 기념전
사공도 정신 담은 신작 5점 공개



이이남 '시화일률-금강전도 Ⅰ'

겸재 정선의 작품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예술을 접목시킨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전시가 마련됐다. 오는 19일까지 서울 겸재정선미술관 제1·2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형상 밖에서 벗어나 존재의 중심에 서다' 전시다.

최근 '다시 태어나는 빛 2019', 제주비엔날레 '뿌리들의 일어섬', 개인전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등의 작품을 통해 '근원(뿌리)'에 대한 탐구를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던 이이남 작가는 최근 '기억의 뿌리 2023' 주제전을 통해 300년 전의 제주살이를 그려낸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를 새로운 시선으로 재해석했다.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보던 서구 중심의 모더니즘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보는 동양의 세계관과 그 투명한 아름다움에 집중한 것이다.

이이남 작가는 겸재정선 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겸재 정선의 정신적 뿌리인 진경산수화와 호남의 줄기인 남종화풍의 작품에 현대미술의 동양적 가치를 집중했다.

조선후기의 문인이자 화가인 겸재 정선은 양천현령으로 5년간 근무했던 선비다. 그는 '경교명승첩', '인왕제색도', '양천팔경첩' 등의 대표적인 동양 산수의 대표적인 걸작을 남겼다.

이이남 작가는 겸재 정선의 정신과 남종화의 가치를 기리기 위해 그의 정신과 영혼을 담은 작품들을 재해석했다.

이번 전시는 진경산수의 전경과 자연의 미학이 결합된 미디어 영상작품 12점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신작 5점을 이번 전시를 통해 선보여 눈길을 끈다.

정선은 중국 당나라 말 시인 사공도의 시론을 받아들여 미학적 이론을 회화로 완성시켰는데 이이남 작가는 정선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동양미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공도의 정신을 신작에 담았다.

메인작품인 '금강내산'은 조선후기 우리나라 고유의 진경산수화 화풍을 통해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옮긴 겸재 정선의 작품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파티클 기법을 통해 디지털의 빛, 생기로 점차 현대화되는 한반도의 이미지를 상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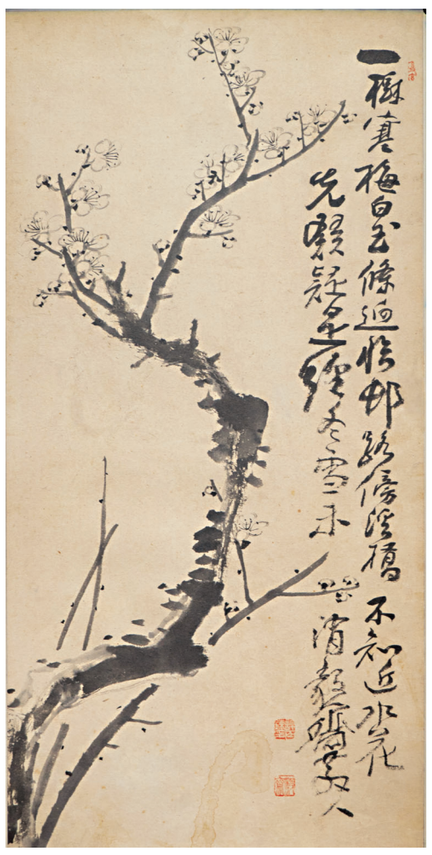
'금강내산' 외에 '시화일률 -금강전도 Ⅰ, Ⅱ, Ⅲ' 연작은 동양의 대표적인 회화들을 선택해 작가의 DNA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푸른 산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각각 그린, 레드, 화이트로 색감을 표현했다. '시화일률' 연작은 각각 산수의 미와 화풍의 절개, 풍위(시의 품격), 시인의 굳건한 혼을 상징하고 있다.

5번째 신작인 '신-금강전도'는 전쟁터가 된 금강산을 통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달라진 금강산의 평화로운 모습을 회상한다. 한 편의 영화처럼 지나가는 이 작품은 남과 북의 대치와 풍경을 통해 고전 속에서 평화란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한다.

한편, 겸재정선미술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겸재정선기념실 정선의 작품세계를 시대 및 주제별로 재구성했고 진경문화체험실은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을 갖춰 정선의 진경산수화를 접목시킨 체험놀이를 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최진화 기자

붓끝으로 피우는 봄의 향연

의재미술관 소장품전
허백련 서예·문인묵화



의재 허백련 '묵매'

봄을 알리는 진한 묵향이 담긴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열렸다. 의재 미술관이 새봄을 맞아 최근 개막한 소장품전 '먹빛에 흐르는 정신'이다.

10월 2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의재 미술관 소장품 중 20세기 남종문인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의 서예와 문인묵화를 살펴볼 수 있다.

선조들은 예로부터 글씨와 그림은 그 뿌리가 같다고 생각했다. 허백련은 고전과 시문에 밝았다. 시서화의 조화를 추구하며 자신의 그림 대부분에 제시를 썼고, 서예도 적지 않게 남겼다. 허백련의 필획에서 느껴지는 기운생동은 글과 그림이 하나라는 옛 구절을 자연스럽게 실감케 한다.

허백련은 처음에는 소치 허련의 글씨를 본떠 써보며 추사체(추사 김정희의 독특한 서체)를 익혔다. 진도에 유배와 있던 무정 정만조로부터 서예를 배웠다. 이후 한나라 예서에서 당나라 구양순과 저수량의 해서, 송나라 소동파의 행서 등 다양한 서풍의 글씨를 연마하며 자신의 서체를 구축했다.

이번 전시에서 서예와 함께 선보이는 사군자나 문인묵화 또한 붓글씨의 연장으로서 문인들이 즐겨 그린 분야다. 허백련은 글씨를 배우던 어린 시절 사군자와 함께 묵화를 배웠고, 평생 그 뜻을 새기며 즐겨 그렸다.

문인들이 좋아했던 식물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생김새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각자 다르게 그리는 것은 이를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허백련의 문인묵화는 그만의 개성이 있다.

이번 전시에는 허백련의 서예·문인묵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한다.

특히 의재 허백련과 제자가 함께 그린 문인화 병풍은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면서도 한 사람의 솜씨처럼 잘 어울리는 귀한 작품이다.

먹으로만 쓰고 그려 단순해 보이지만 각자의 개성을 담을 수 있는 서예·문인묵화는 화가이기 이전에 문인으로서 그의 고매한 인격과 심오한 예술의 면모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허백련의 장손인 직헌 허달재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이나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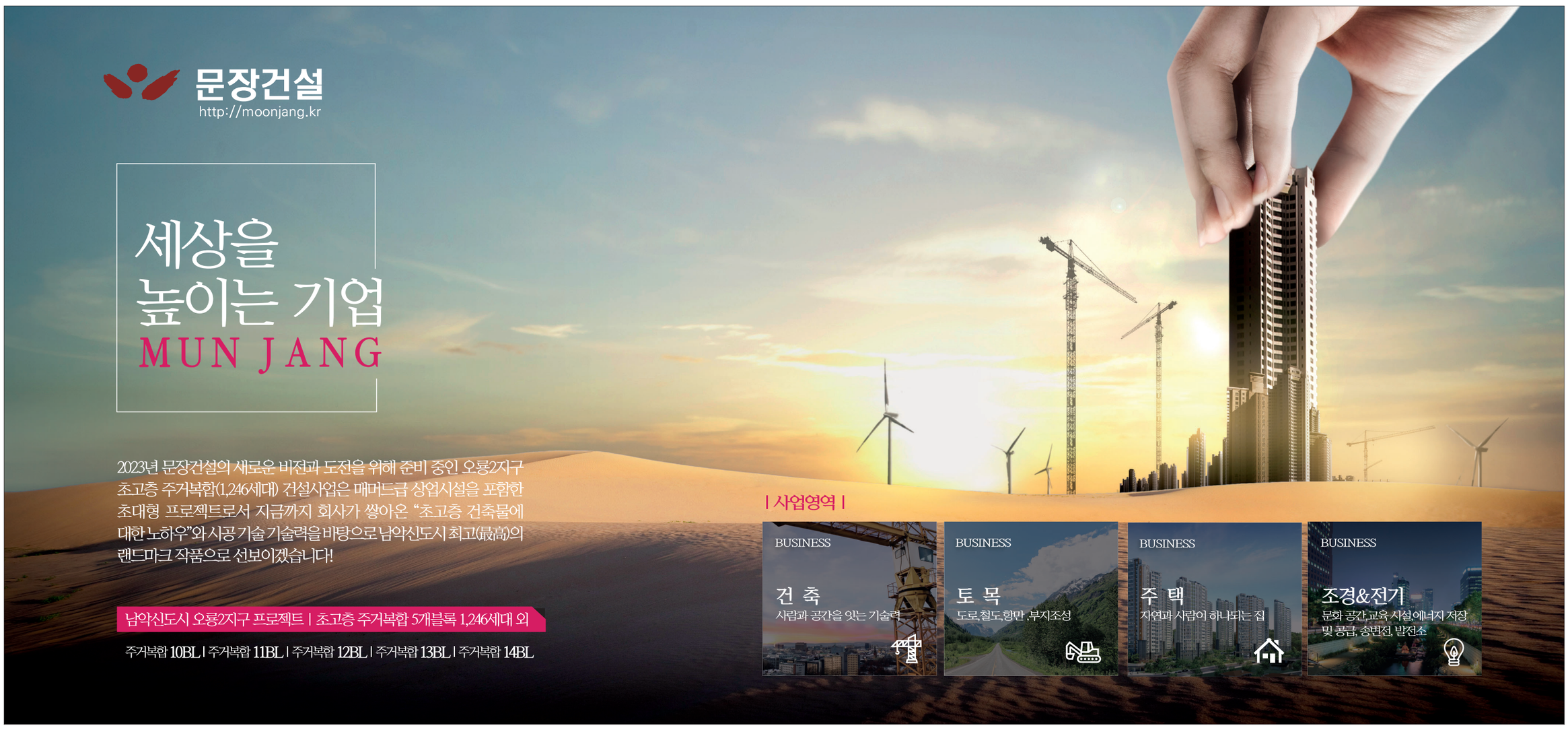
한국 그림책 4편,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

6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어린이책 전시회인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한국 작품 4편이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지연 작가의 '이사가'(엔씨소프트)가 픽션 부문, 미아 작가의 '벤치, 슬픔에 관하여'(스튜디오움)가 오페라 프리마 부문, 김규아 작가의 '그림자 극장'(책읽는곰)과 5unday(글)·윤희대(그림) 작가의 '하우스 오브 드라큘라'(House of Dracula)가 만화(중등, 만 9~12세) 부문 우수상(스페셜 멘션)에 각각 선정됐다.

지난해 이수지와 최덕규 작가 작품이 각각 픽션과 논픽션 부문 우수상을 받은 데 이은 쾌거다.

1966년 제정된 볼로냐 라가치상은 볼로냐 아동도서전에 출품된 도서 중 예술성과 창의성이 우수한 책에 수여한다.

한국 그림책은 2004년 첫 입성을 시작으로 거의 매년 라가치상을 받았다. 올해 시상식은 6~7일에 열린다.

아동도서 가운데 그림책은 세계 시장에서 잇달아 좋은 성과를 거두며 K-콘텐츠 주역으로 주목받았다. /연합뉴스